

특별인터뷰

'아는 것과 다른 맥아더의 한국전쟁' 펴낸 정일화 교수

# 세계 최고 과학기술국 청년군인·최신 무기 지원 받아

## 전쟁에 대한 분명한 지평선을 그을 수 있는 잣대 제공



정일화 교수

"그때 전쟁은 참혹했다. 한국은 북한침략군을 물리칠 과학기술도 없었고 그런 싸움을 감당할 만한 군대도 없었다. 더글러스 맥아더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국방장관, 참모모장, 장교, 병사들이 도망가고 허둥댈 때 피난 가는 대열을 거슬러 한강변으로 올라와 인민군에게 '내가 너희를 상대하겠다'고 외쳤다"

대전대학교 정일화 교수가 최근 펴낸 '아는 것과 다른 맥아더의 한국전쟁'은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미국방성과 백악관, 국무성 등을 출입하며 매일 정례브리핑에 참석하고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은 자료를 토대로 쓴 책이다.

정 교수는 전쟁이 아직 종결되지 않아 북한의 자료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자료도 최근 10년 사이에 나온 적은 양의 자료에 불과해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약한 것인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는 한국전쟁에 참가한 16개국은 그때 당시 선진국으로서 각 국가마다 개발한 최신식 무기와 군대를 파병했다고 한다. 당시 29세에 장군이 된 백선엽 장군은 50~60대 미군 장군들과 전쟁을 경험하면서 한국군의 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노하우를 얻기도 했다.

정 교수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세계에 많은 문화민족의 대열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1950년에 전쟁을 겪어야 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교훈을 삼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 교수는 한국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면서 6.25특집기사를 많이 썼다. 논문을 쓰고 책을 냈다. 백선엽, 김점곤, 유병현, 유양수, 이대용, 하우스만과 같은 전쟁영웅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40년, 50년이 지나도 계속 나오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쟁자료들을 모으면서 이 전쟁이 매우 복잡한 국제전쟁이며 한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좀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점 당할 때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의 국제세력이 일본에 불었다. 이들은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는 것에 대해 전쟁과 조약으로 협력했다. 그때 일본은 서구의 방대한 과학기술을 들여와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를 만들었으나 한반도는 일본이 비행기를 만들 때 자전거도 못 만드는 한심한 수준이었다.

1950년 북한은 소련제 T34탱크, 150mm 장거리포, 야크공격기 등의 2차대전 후기의 최신과학장비를 갖고 남침해 왔다. 그때 전쟁은 참혹했다. 한국은 북한 침략군을 물리칠 과학기술도 없었고 그런 싸움을 감당할 만한 군대장도 없었다.

그러나 남한은 1910년처럼 외톨이가 아니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벨기에, 터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태국 등 당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국들이 귀한 청년군인들과 최신무기를 한국전쟁에 보내 대한민국을 도왔다.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이것이 최후 방어선임을 분명히 하고 'Stand or Die'(맞서라, 아니면 죽는다)라는 독한 작전명령을 내리고 전선을 지켰다. 대한민국이 부산 앞바다에 쓸려 들어가는 비극을 막아냈다.

통일을 이룩하라는 유엔결의안 통과를 기다린 후 38선을 넘었을 때, 만일 중공군이 인해전술을 갖고 덤비지 않았다더라면 대한민국은 자유통일 되었을 것이다.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국제정치관계, 무기체계, 전략전술을 지난 50년간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은 가슴 설레게 풀었다.

지금까지 복잡한 한국전쟁을 국제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렇게 예리하게 분석한 예는 없다.

이 책은 6·25를 통해 저

질렀던 수많은 어리석음, 용기 그리고 처참한 비극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쓰고 있으면서 그런 전쟁을 다시 한다면 분명한 지평선을 그을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정 교수는 "인천상륙의 기적이 일어나 서울을 수복했다. 평양을 점령하고 북진하여 압록강 물을 마시면서 이제 통일이 되었구나라고 두 손을 들고 환호하다가 중공군 포위망에 걸려 국군과 유엔군이 죽어갔다. 그 역사를 다시 그려 펴는 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린 이 시대의 영웅들에게 고마움을 드리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밝혔다.

정일화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해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 겸 통일문제연구소장을 역임했으며 단국대학교에서 미국의 봉쇄정책연구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한국기자상, 1985년 한국과학기자상을 수상한 정 교수의 저서로는 ▶'아는 것과 다른 맥아더의 한국전쟁' ▶워싱턴 전망대(크리츨만, 1996) ▶하우스만 증언(한국문원, 1996) ▶우리시대의 언론(장원출판, 2000) 등이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취재파일

진정한 장애인 정책

# 장애인 편견 극복방안 마련이 최우선

## 포천시 주도 지역사회와 커뮤니티 형성해야



하승원 본지 취재국장

지난 14일 포천종합체육관과 운동장에서는 포천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우정과 화합의 축제인 제2회 포천시 장애인 한마당 큰잔치가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처음 개최한 고품위 체육대회보다 규모를 확대해 장애인들의 단순한 체육경기에 벗어나 장애인 문화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축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행사를 주관한 경북대학 포천재활복지연구소는 도우미 300여명을 배치해 장애인들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각 읍면동별로 8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가해 팔씨름과 윷놀이, 단체줄넘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 6개 종목 체육행사를 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런 일은 장애인들로 바치는 기쁨해야 일년에 한두번 있을 정도다.

특히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북대학 포천재활복지연구소의 열의에 따라 장애인들이 큰 불편함없이 움직일 수 있었고 일반인이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 그림 및 공예품, 의료재활복지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장애인 스스로 재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포천재활복지연구소는 노인과 장애인, 장애인 등의 포괄적인 재활복지와 재활 촉진을 위해 노인건강 증진프로그램, 장애인가족 지지프로그램,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재활 서비스등 전인재활을 통해 효과적인 재활복지사업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손에 손잡고 다함께(Hand in Hand, Together)'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장애인들이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장애인 체육대회엔 축제 한마당이든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이다.

장애인을 일반인들은 대부분 평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쉽다.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함께 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생활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일반인과 다르다.

장애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생리적 혹은 인체구조상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인 경우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 교통사고나 여타 사고에 의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장애인 분류를 보면 지능지수가 매우 낮은 사람에서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 혹은 시력, 청각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손가락과 무릎관절이 심한 사람도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다. 사고로 인해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장애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이라도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라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일반인들이 장애인을 보고 시각에 못지않게 장애인들도 사회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결함을 의식해 일반인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신체장애인을 들어하는 말이다. 아직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제한된 곳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장애인들은 사회가 자신을 보살피 주지만 생각하지 말고 정신인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 자활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혜택이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정신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차원에서 중증장애인 수당을 비롯해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증여세 면제 등 60여 종류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각종 재활연구소 센터가 있다. 재활센터에서는 장애를 치료하는 것에서부터 장애정도의 호전 혹은 불편한 정도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사정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이나 각종 단체에서 이들 사회복지시설에서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명절이나 평상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은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매월 자원봉사에 나서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예전같지 않다는 게 시설관계자들의 말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은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

인가시설인 경우 국가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그나마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 그러나 비인가시설인 경우에는 국가지원이 많지 않아 곤란을 겪고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인가시설은 많이 찾지만 비인가시설은 그렇지 못하다.

포천시 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많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요양원이나 고아들이 생활하는 시설, 장애인 시설 등을 말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포천시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포천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시작할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포천시에선 각종 단체와 중소기업들이 많다.

또 학급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을 하나로 묶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안전망 구축사업을 해야한다. 포천시가 주관이 되어 각 단체별 혹은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월 한번 이상 찾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년 평가를 하고 시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단체나 공무원들에게는 예산지원 폭을 확대한다든지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위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풍토 조성이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일반인이 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제12회 경기북부학생 창업아이템 및 생활용품발명경진대회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참신한 창의력 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아이디어 계발에 대한 의식 고양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발명활동을 촉진하고자 제12회 경기북부학생 창업아이템 및 생활용품 발명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예비 기술인력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행사개요

#### ■ 추진기관

- 주최 :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 주관 :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지식재산센터·창업보육센터)
- 후원 : 포천시청, 경기대전테크노파크, 경기도 교육청

### ● 참가신청 및 접수

#### ■ 참가자격

- (대학부) 경기북부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고등부)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 참가신청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7. 9. 17(수) ~ 10.31(화) (우편도착분에 한함)

#### - 접수 및 신청방법 :

- ① 우편(방문)접수: (487-711)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산11-1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 ② E-mail: bunch09@daejin.ac.kr

### ● 시상계획

-발표 : 2007년 11월 중 <http://tech1.daejin.ac.kr>에 공지(개별연락)

### ● 문의 :

대전대학교 지식재산센터 Tel:(031)539-1277, Fax: (031)539-1279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tech1.daejin.ac.kr](http://tech1.daejin.ac.kr) 또는 [www.daejin.ac.kr](http://www.daejin.ac.kr)) 참조 바랍니다.